

한국 자료조직 연구의 지적 토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Cataloging Research in Korea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서론 | 1. 학문 발아기의 연구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편목도구 개발 시기의 연구 |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 편목업무 전산화 시기의 연구 |
|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지적 의존성 | 4. 메타데이터 도입 시기의 연구 |
| III. 한국 자료조직 연구의 지적 토대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근대 도서관사에 있어 자료조직에 대한 지적 토대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고유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토착적' 가치를 지닌 자료조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성찰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동안 도서관계 혹은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자료조직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이들이 어떠한 토대와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성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자료조직, 정보조직, 편목, 목록, 지적 기반, 지적의존성, 학문종속성, 탈식민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mprehensive inquiry about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cataloging research in Korea. Emphasis was on analyzing how both pertinent and indigenous the Korean cataloging theory and practice have been developed to the Korean bibliographic environments. To the end,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exhaustively the research articles produced from the early 1950's to the present in Korea. These articles are divided and reviewed into four periods: the period of (1) beginning research activities, (2) compiling the Korean cataloging tools, (3) applying cataloging automation, (4) introducing metadata. The focus was on investigating their intrinsic values and philosophies about information organization.

Key Words: Cataloging Research, Cataloging, Cataloging Practice in Korea, Intellectual Founda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hrho@pusan.ac.kr)

• 접수일: 2005년 2월 22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필자는 그동안 우리 도서관에서 생산해온 목록이 도서관이용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왔다. 우리의 도서관 사서들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목록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목록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나아가 네트워크 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서들이 만들어온 목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였다.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은 그동안 「우리 편목 업무의 적실성」이나 「우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등과 같은 테마로 구체화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필자는 우리의 도서관이용자들이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편목사서들 사이에서조차 도서관목록의 '존재 가치'와 편목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과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개선 방안이란 기껏해야 또 하나의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파악된 부실의 뿌리는 바로 도서관경영진과 편목사서들이 도서관목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있었다. 도서관경영진의 관심은 편목의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고, 편목사서들의 관심은 목록의 형식을 유지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듯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일관성을 앞세운 형식주의가 편목 업무를 지배하다 보니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가 도서관목록의 조악한 품질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게 변모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리해 보았다. 그 결과, 자질 있는 편목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혁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형식적 완전성 제고를 위한 체제의 정비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더불어 편목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서관목록의 내용적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편목사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 나름대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크게 남아 있었다. 실제로 우리 도서관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혹은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필자는 해결 방안 혹은 모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목록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 도서관목록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생산과정과 절차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동

안 우리는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한 가운데 도서관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급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록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목록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토착적'이기보다는 '미국적'이었으며, 이용자 중심적이기보다는 기관 중심적이었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추종해온 자료조직의 방법과 내용이 어떠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관습과 관행에 의거하여 현재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근대 도서관사에 있어 자료조직에 대한 지적 토대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고유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토착적' 가치를 지닌 자료조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비록 필자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결과는 자료조직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틀과 이러한 인식의 틀이 형성된 과정을 재검증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뿌리조차 잃고 표면적인 논리에 얽매어 있는 우리 도서관계의 의식과 행태, 특히 편목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쇄신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990년대 이후 우리 문헌정보학의 연구 동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25편 가량의 연구물들을 보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학문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어떤 영역 혹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관심분야와 학문적 유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특정 영역이나 주제 분야별로 기존의 연구들을 범주화하거나 시기별 연구경향을 '정량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어, 그동안의 功過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도서관계 혹은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자료조직 연구물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한 후¹⁾,

1) 이를 위해, 「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와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國內圖書館學 關係著書目録: 1945-1987. 6」 등과 각종 서지DB를 통해 관련 연구물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저서(역서 포함)와 학위논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도서관기관지의 성격을 띤 잡지에 수록된 논문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손정표의 연구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과(당시 도서관학과)가 대학에 본격적으로 설립된 1957년 이후부터 지난 2002년까지 자료조직 관련 연구물은 학술지 수록 논문 242편과 도서관기관지 논문 94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3호 (2003. 6), pp.8-12.

이들 연구물이 어떠한 토대와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된 것인지를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된 연구물은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 도서관의 자료조직 업무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시기 (1950년대~1960년대)²⁾, ② 도서관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편목도구를 편찬하고 정비하기 시작한 시기 (1960년대~1970년대)³⁾, ③ 도서관 업무에 전산화 도입을 고려하고 편목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 (1970년대~1990년대 초반), ④ 메타데이터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 (1990년대 중반이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자료조직 업무가 발전해 온 과정을 짚어보고, 특히 자료조직과 관련한 우리 학문의 연구성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지적 의존성

학문의 공통된 목적은 주어진 현상에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describe)하고, 설명(explain)해서 이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 즉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주어진 현상을 미리 예측(predict)하고, 나아가 이를 통제(control)하는데 있다.⁴⁾ 이러한 목적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마찬가지이며, 각 분

2) 해방 이후 '전문 도서관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기관은 '國立朝鮮圖書館學校'였다(1946년 4월 1일 개교). 이 때는 당시 도서관계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내에 배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후, 본격적으로 학문이 도입된 시기는 1954년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을 맡고 있었던 이봉순에 의해서였다. 그는 1955년부터 이화여대에 장차 도서관학과 설치할 계획을 하면서 교양학부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서관학을 강의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도서관이 연구되기 시작한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가 결성되면서 '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서관학을 전공할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문교부장관과 국회문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당시 협회장 및 관련인사들과 한미재단이 공동으로 논의하던 차에 연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 사범대학이 인연을 맺어 1957년 연세대학교에 4년제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뒤이어 1959년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 중앙대학교, 1964년 성균관대학교에 각각 학과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자료조직 업무가 본격적으로 학문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는 '1950년대~1960년대'로 볼 수 있다. 엄대섭, "圖協 五年의 발자취(上)," 도협월보, 제1권 제2호(1960, 4), pp.28-32; 박희영, "最近世韓國圖書館史抄: 1945. 8. 15-1950. 6. 25," 도협월보, 제7권, 제3호(1966, 4), pp.9-11.; 박희영, "6·25 사변후의 한국도서관(上)," 도협월보, 제7권 제5호(1966, 6), pp.19-26.

3)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도서관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편목도구의 편찬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 이전까지 분류는 주로 듀이십진분류법 제15판의 한국어 번역본을 사용하거나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 혹은 곳곳에서 창작해낸 십진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편목규칙은 '일본목록규칙'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여 사용하거나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1949년판'과 '미국의회도서관기술목록규칙 1949년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57년경 분류표작성위원회에 의해 '분류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1962년 독자적인 '편목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1961년 「주제명표목록표」, 1964년 「한국십진분류법」과 「한국목록규칙」이 발간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론(세영사, 1990), p.36.

야에 따라 그 연구대상만 다를 뿐이다. 가령,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문헌정보학에서는 각종 문헌정보 현상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⁵⁾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 문헌정보학은 비교시각에서 볼 때 독특한 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나온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간의 경험을 옹기종기 모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학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전 한국 도서관계는 거의 일본인에 의해 움직여졌고, 그들에 의해 간간이 교육도 이루어졌다. 정규 교육기관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朝鮮圖書館聯盟」등이 주최하여 사서인력 양성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도서관계는 근대 도서관학을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학문에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학문적 관심은 전쟁으로 인한 시국의 혼란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일제로부터 인수받은 도서관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서관계는 조직의 정비에 나섰다. 도서관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朝鮮圖書館學校」를 설립하고, 한국 도서관인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朝鮮圖書館協會」를 조직하였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이재욱, 박봉석 등이었다. 이들은 일본을 통해 숙지한 도서관 '학'을 강의했지만,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당면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6·25 동란으로 또다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된 한국 도서관계는 또 한번의 재정비 작업을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관계 지도자들이 남북 또는 행방불명되어 구심점이 없어지자, 慶州邑立圖書館의 관장이었던 임대섭이 전국의 각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을 화합하여 '한국도서관협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5년 창립총회에서 對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였는데, 이 가운데 도서관원을 양성하기 위한 '도서관학교'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서관학교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韓美財團의 원조를 받아 도서관학교를 설립하고, 도서관학을 전공할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교육사절단으로 내한한 피바디 사범대학의 교수단이 1957년에 연세대학교에 정규 학부 4년 과정으로 도서관학과와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계기로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수입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유학이나 시찰을 떠나기 시작하였다.⁶⁾ 이렇게 해서 한국 도서관계와 학계는 외국의 新學問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5) 필자가 속해있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identity)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유통을 위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의 성격은 응용사회과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가공·축적·검색·제공 그리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한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관리와 유통과 관련한 역사적·정책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동향과 특성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지식정보자원의 시공간적 유통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학과 안내」 자료, <<http://info.lib.pusan.ac.kr>>.

6)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기 위하여 유학한 나라는 거의 '미국'이었다. 당시 유학한 사람을 추려보면 이봉순(1950-1954년), 장일세(1957-1958년), 이종문·박은자(1958-1959년), 원종린·박동연(1959-1960년), 명재희

외국의 ‘新學問’이란 대부분 미국식 학문이었다. 해방 전 혹은 6·25 동안 이전에도 일본을 통해 신학문이 들어왔지만, 일본 또한 미국으로부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결국 뿌리는 모두 ‘미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더구나 본격적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졌던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와 강의가 미국인 교수와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내용은 당연히 미국식 학문이었다. 물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학문의 체계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거의 황무지였던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도서관학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할 수가 없었다.’⁷⁾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도서관계와 도서관학계에는 미국적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자연스럽게 이식되었고, 그에 동반되는 지적 ‘식민화’(colonization) 과정이 진행되었다.

당시 도서관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은 ‘해방자’적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난 지배적 권력이었다. 이러한 권력은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친미적 세계관으로 혹은 주류적 패러다임으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공주의와 새로운 개발주의적 에토스 속에서 미국적 세계관과 미국적 패러다임은 더욱더 한국사회, 특히 지식세계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⁸⁾ 이러한 정착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지식엘리트들이 대거 한국 학계에 자리를 잡아가고, 이들을 통해 미국적 패러다임의 재생산 매커니즘이 정비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재정비 과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국적 패러다임과 시각은 외재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재화된 시선과 시각으로 정착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현실을 미국적 패러다임에 의해 분석한 후 다시 한국 현실에 유입하는 방식이 주류로 통용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고착화되어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학문을 우리의 토양이나 문화에 맞는 자생력 있는 학문으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노력이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뚜렷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보내면서⁹⁾, 우리에게 미국은 언제나 모방하고 追隨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세계관과 인식 패러다임에 ‘과잉미국화’가 존재했던 당시로서는 미국의 지적 유행이 곧이어 한국의 유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잉미국화는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적 식민화에 대한 성찰의 공간이 확대되었다. 이 때, 비판적 인식에 입각한 ‘식민지론’이나 ‘종속론’ 등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는데, 문헌정보학계에서도 그동안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촉

(1960-1961년), 이재철(1961-1962년) 등이었다. 또한, 미국국무성의 초청교환계획에 의하여 이춘희(1959-1960년), 박계홍(1961-1962년), 문병욱(1963-1964년)이 도미하였고, 김세익, 이종문, 이춘희 등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도서관계를 시찰하였다. 이들은 이후 도서관 현장 및 학문을 개척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박희영, 전계서, p.23)

7) 김세익, “한국 도서관학의 반성과 전망,” 도협월보 제7권 제0호(1966, 12), p.14.

8)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울, 2003), p.3.

9) 김세익, “한국도서관학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13권 제1호(1976, 1), p.21.

구하는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¹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작용하면서, 세계화를 주동하는 지배적인 힘으로서 미국적 표준과 미국적 패러다임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새로운 추수현상이 촉발되면서 미국적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다시금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친미적 세계관과 지적 패러다임을 복원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미국을 준거로 하여, 학문의 내용과 과학적 방법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방법론과 이론에 대한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의 ‘신식민주론’은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문의 재생산을 촉구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 이론 작업과 그 이론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적 글들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¹¹⁾ 문헌정보학계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학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하면, ‘우리 현장의 현실을 심도 있게 관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나아가 주체적이며 토착적인 입장에서 학문을 하자’¹²⁾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의 이른바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학문 패러다임을 제고하는데 있어 여전히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문헌정보학은 현장에 기반한 실무적인 응용학문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론은 없이 적용을 주로 하는 실무 위주의 경향’¹³⁾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학문의 과학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토착적 이론의 개발과 축적은 극히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학계에서 생산되어 온 각종 연구물들을 분석해 보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나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의 생산보다는 임시응변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지나치게 몰두해 왔음이 그대로 드러난다.¹⁴⁾ 그러다 보니 학문의 체계에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은 더욱 확장되어 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속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은 우리 뿐 아니라 학문의 원조 격인 미국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효율성 중심의 기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10) 해방 후 미국을 통한 학문 도입과정을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여타 사회과학분야에 비해, 문헌정보학은 학문의 실천성과 현실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에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토착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구체적인 비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 조류의 영향을 받은 단속적인 언급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김정근 엮음,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지식산업사, 2000), pp.345-346.

11) 최근 ‘교수신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적 산물들을 엮어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 현대 한국의 자생이론 20』(생각의 나무, 2003)을 발간하였다.

12) 김정근 엮음, 전거서, p.350.

13) 심우준, “2000년전의 편목자들의 역할: 우리는 무턱대고 과거를 비려야 하나?,” 국회도서관보, 제17권, 제2호(1980, 3), p.82.

14) 이제환, “디지털 환경에서 문헌정보학의 길 찾기,”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한울, 2003), p.201.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들은 학문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명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방향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나갔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비록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처방의 제시는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여전히 그들의 논쟁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현존하는 학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의 정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료조직'이 바탕하고 있는 철학과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봄으로써 자료조직 분야에 있어 연구의 주체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Ⅲ. 한국 자료조직 연구의 지적 토대

1. 학문 발아기의 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도서관계가 근대식 도서관학을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은 일본에 의해서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전적인 뒷받침으로 '도서관원의 질적 개선'과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목적에서 일본인에 의한 도서관학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습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¹⁵⁾ 체계적으로 교육되거나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자, 한국 도서관계는 1945년 8월 30일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여 일본인이 운영하던 도서관을 '온전히' 인수받아 새 국가의 도서관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¹⁶⁾ 그러나 인력 미비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도서관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도서관업무에 대하여 전연 지식이 없는 '현직' 도서관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조선도서관학교와 강습회의 교육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과 국립도서관 부관장 박봉석,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김진섭, 그리고 일제시대 사서검정시험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합격하고 이후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최장수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의 도서관계

15)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도서관 강습회는 1931년 8월 5일 '조선교육회'가 주최한 강습회였다. 이후 1935년 10월 두 번째 강습회는 '전국도서관대회준비회'(일본도서관협회 주관)가, 1936년 8월과 1938년 8월에 개최된 세 번째, 네 번째 강습회는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가 주최가 되어 개최하였다. 또한 1939년 7월 '조선도서관연맹'이 정식 발족한 후부터는 동연맹이 주최가 되어 194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도서관연맹이 주최한 제5회 강습회(1943년)에서는 1939년 3월에 일본의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한 박봉석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사』(국립중앙도서관, 1973), p.231 : 윤상기, "한국 도서관학교육사: 발생기(195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동의논총 제14집(1987. 2), pp.178-180.

16) 박희영, "最近世韓國圖書館史抄 : 1945. 8. 15-1950. 6. 25," 도협월보, 제 7권, 제 3호(1966, 4), p.9.

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그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했던¹⁷⁾ 당시로서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도서관학(보다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 운영 기술')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각양각색의 분류표와 목록규정, 특히 한국을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위주로 한 분류표와 목록규정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었다.¹⁸⁾ 이에 박봉석은 1947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동서도서분류법』과 『동서편목법』을 편찬하여 강의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국 최초의 표준분류법과 표준편목규정을 마련하였다.¹⁹⁾ 또한, 이재옥은 「圖書館論」, 「여성과 도서관」 등의 글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25 동란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인수받은 도서관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들과 조선도서관학교 및 각종 강습회를 통해 양성된 젊은 도서관인들 중 상당수가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인적 손실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일단락되자 한국 도서관계도 재정비에 나섰다. 6·25 동란에서 남은 도서관인들을 결집하여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를 결성하는 한편²⁰⁾, 도서관원을 양성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亞細亞財團, 韓美財團, 국립도서관의 원조를 받아 '도서관실무강습회'를 개최하였다.²¹⁾ 이와 동시에, 외국의 새로운 도서관학을 수입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외국유학과 시찰을 떠났다.²²⁾ 외국의 도서관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한국 도서관계는 이로써 새로운 기술과 신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시기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학과정'에 도서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실무로부터 이론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도서관의 직접적인 요구에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던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도서관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로 인해 연세대학교를 필두로 4년제 대학과정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고, 더

17) 박희영, "6·25 사변후의 한국도서관(上)," 도협월보 제 권 제 호(1966, 6), p19.

18) 박희영, 전거서.

19) 당시 조선도서관학교의 교육과정은 1년이었으며, 주요 교과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과 일반 교양과목(어문학, 국사, 사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과목은 도서관관리법, 도서관사, 도서분류법, 東書編目法, 東書編目法실습, 西書編目法, 西書編目法실습, 서지학, 인쇄 및 제본법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분류와 편목이 교과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분류법과 편목법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20) 1955년 3월 16일 마침내 '도서관협회'의 결성을 위해 서울의 각 도서관 대표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방이후 '조선도서관협회'를 창립하였던 대다수의 인사가 월북 또는 전직, 퇴직, 행방불명된 상태라 발전적 해산이라고 치부하기도 곤란하고 이를 그대로 계승하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6·25 동란 이전의 '조선도서관협회'는 자연소멸한 것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단체로서 「한국도서관협회」를 결성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21) 이 때에도 교육내용은 역시 분류와 목록(편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2) '도서관학교'의 설립과 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학을 전공할 유학생을 해외에 파급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건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사무 특히 도서관의 분류편목 등은 순전히 전문적 기술부에 속한다. 도협산하 백여 개소의 각종 도서관과 수개소의 신설도서관에서 사서의 알선을 호소하나 속수무책인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어 대학원 석사과정도 설립되는 등 학문적 접근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학문의 내용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 도서관 관리나 분류·편목 등 실무적인 면에 여전히 치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학교수나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할 이른바 유능한 사서를 길러내는 일이 더욱 절실하고 긴박하다’²³⁾는 단순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학문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외국 도서관의 현황이나 신학문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해외도서관 소개’, ‘외국의 도서관학교육 개관’, ‘외국의 도서관학연구’와 같은 연구물들이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 자료조직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이 시기에는 DDC를 비롯한 현대의 도서관분류법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²⁴⁾ 서양의 목록법 이론을 설명해 주는 연구물들이 주로 발간되었다.²⁵⁾ 이러한 가운데, 외래 학문의 도입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번역서의 출판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커터著者二位表의 使用法』(해사도서관 역, 1953), 『簡易圖書館資料目錄法』(S. G. Akers 저; 김중한 역, 1959), 『중국, 일본 및 한국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규칙과 편람』(Library of Congress; 백린 역, 1959), 『듀이십진분류법』(DDC 한국어판번역연구회 역편, 1959-1962), 『분류목록』(R. Burgess;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역, 1959-1962), 『미국의회도서관기술목록규칙』(장일세 역, 1961), 『목록규칙』(S. Lubetzky 저; 이재철 역, 1963) 등과 같은 번역서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²⁶⁾

이로써 한국 도서관계는 ‘현대식’ 도서관 운영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도서관학계는 이러한 내용을 학문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나갔다. ‘기술’로서의 도서관학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던 당시로

23) 김세익, “한국 도서관학의 반성과 전망,” 전계서, p.14.

24) 임중순, “DDC의 초기성 기호에 대하여,” 국립도서관보, 제59권(1958, 12), pp.4-24; 임중순 “DDC 제6 판 초기성 기호에 대하여,” 국립도서관보, 제67권(1959, 8)-제75권(1960, 5·6); 임중순 “현대도서관분류법개요,” 도협월보, 제1권, 제6호(1960, 9)-제2권, 제2호(1961, 3·4); 백린, “분류규정,” 도협월보, 제1권, 제8호(1960, 11), pp.23-27; 천혜봉, “동서용 DDC,” 女苑, 제77권(1961), pp.26-38; 백린, “현대분류법에 대하여,” 도협월보, 제7권, 제6호(1966, 7·8), pp.6-16.

25)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장으로 근무했던 백린은 5회에 걸쳐 “도서목록법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의 의의, 종류, 목록규칙, 기본기입, 표목 등 현대식 목록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목록개론서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백린, “도서목록법 해설,” 새교육, 제11권, 제2호(1959, 2), pp.46-47; 백린, “도서목록법 입문,” 도협월보, 제1권, 제1호(1960, 3), pp.15-20; 제1권, 제2호(1960, 4), pp.17-25; 제1권, 제3호(1960, 5), pp.16-20; 제1권, 제4호(1960, 6), pp.25-30, 제1권, 제5호(1960, 7·8), pp.20-24).

26) 대학과정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에(1978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外書의 번역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 전문 정기간행물인 『문헌정보학연구』를 계간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의 ‘발간사’에 보면,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가 선진외국의 도서관학을 도입하여 모방해 왔던 시기”로써, “외국의 학문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번역사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外書의 번역활동이 미약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外書의 번역활동을 촉진하여 국제적인 현황과 발전의 추세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도서관계와 학계에 소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의 관계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그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학문 초기에 비교적 활발히 전개된 번역작업이 실제로는 일시적이거나 당장의 필요에 의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학문에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자료의 번역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국의 新學問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조차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는 이론과 원리보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이 우선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은 6·25 동안 이전에 한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⁷⁾ 즉, 학문 자체가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여 해방 이후에 만 들어온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자료조직에 있어서는 내용에 치중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하던 ‘전통’ 방식을 외면하고 자료의 형태적인 면에 집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도서관학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식’으로 볼 수 없으며²⁹⁾, 따라서 ‘기술적인 사무를 지양하고, 도서관과 인간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³⁰⁾가 되어야 하며 ‘전문직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이론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³¹⁾는 이유에서였다. 심지어는 ‘도서관 현장의 사정이 어떻든 또 현장의 요구가 무엇이든 대학에서는 학문이라는 기본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괴리되더라도 학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직 분야는 ‘工具과도 같이 책을 분류하고 편목하여 이를 배열하고 찾아주는 데에만 민감히 신경을 쓰는 단순한 그리고 경험을 내세우는 기능’³³⁾으로 변모해 갔으며, 이 때 생산된 연구물들 또한 이러한 ‘기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³⁴⁾

2. 편목도구 개발 시기의 연구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한국 도서관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극도로 혼란상태에

27)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조선도서관학교」를 학문적 토대로 하지 않고,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대 수입된 미국의 도서관학 조류를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28) 이에 대해 심우준은 “결코 우리의 역사는 최근에 들어온 서양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과거를 땀겨치고 ‘학’은 날이 갈수록 기술로 손쉬워 빛을 보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심우준, “2000년전의 편목자들의 역할: 우리는 무턱대고 과거를 버려야 하나?,” 국회도서관보, 제17권, 제2호 (1980, 3), p.81-82.

29) 김정소,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5집 (1978, 12), pp.1-31.

30) 이춘희,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적 실정에서 본 사서직의 직무,” 도협월보, 제1권, 제8호(1960, 11), p.29.

31) 김세익, “시련과 변모: 한국 도서관학교육에 대한 각서,” 도협월보, 제14권, 제7호(1973, 7), p.6.

32) 김세익, “한국도서관학의 현황과 전망,” 전개서, p.23.

33) 심우준, “2000년전의 편목자들의 역할: 우리는 무턱대고 과거를 버려야 하나?,” 국회도서관보, 제17권, 제2호 (1980, 3), p.78.

34) 이 시기에 생산된 대표적인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백린, “도서목록법 해설,” 새교육, 제11권, 제2호 (1959, 2), pp.46-47.

백린, “도서목록법 입문,” 도협월보, 제1권, 제1호 (1960, 3), pp.15-20; 제1권, 제2호 (1960, 4), pp.17-25; 제1권, 제3호 (1960, 5), pp.16-20; 제1권, 제4호 (1960, 6), pp.25-30; 제1권, 제5호 (1960, 7·8), pp.20-24.

백린, “분류규정,” 도협월보, 제1권, 제8호 (1960, 11), pp.23-27.

외버트 베제스, “한국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분류 갱신 문제,” 도협월보, 제1권, 제2호(1960, 5), pp.1-3.

이병수, “분류목록작성법,” 국회도서관보, 제5권, 제5호(1969, 6), pp.13-28.

천혜봉, “중서용 DDC,” 女苑, 제77권 (1961), pp.26-38.

장일세, “高大도서관의 두 가지 분류표에 관하여,” 도협월보, 제1권, 제1호(1960, 3), pp.21-24.

빠져있던 도서관 자료의 재정비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내 도서관계의 표준이 될 분류법을 편찬하고 편목규칙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사부분류법은 이미 19세기 말엽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의 문화와 학문을 수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고, 동양의 전통적인 편목규정은 제대로 성문화된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해방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이었다.³⁵⁾ 이들은 우리의 독자적인 편목도구로써 1950년대 중엽까지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 채용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의 표준 편목도구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십진분류표」는 「실무상의 번잡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제의 세분과 새 주제의 삽입이 어렵게 짜여져 있었으며,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실무를 통한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확실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³⁶⁾ 일제시대 사용되었던 일본 편목규칙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한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 新學問의 수입과 더불어 「듀이십진분류법(DDC)」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하자, 1960년대 중반에는 급기야 대학도서관의 70% 이상이 DDC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³⁷⁾ 또한, 편목규칙도 「日本目錄規則」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여 사용하거나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 1949년판」과 「미국의회도서관기술목록규칙 1949년판」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점차 늘어났다.³⁸⁾ 그 결과,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데 실패하면서 도서관마다 재량껏 편목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편목도구를 이용하는 등 점차 편목방식의 체계와 통일성이 결여되어 갔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57년 분류분과위원회와 편목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분류법 천구분 초안」과 「표준편목법 초안」을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61년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또다시 분류법의 편찬사업을 논의하였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³⁹⁾ 국립도서관에서도 1962년에 「조선십진분류표」의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사상과 20세기 이후에 수입된 서구문명을 포괄하는 표준화된 편목도구를 편찬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35) 조선도서관협회에서는 1946년 7월 15일 출간된 박봉석의 「동서도서분류표」 초안의 요목을 수정하여 전국 통일 분류표로 인준하였다. 이후 이 요목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정식 세분표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1947년 10월 15일에 발행된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였다.

36) 박봉석 편, 『朝鮮東書編目規則』, 서문.

37)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 그의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7호(1967, 7), pp.5-6.

DDC가 국내 도서관계에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초 서울 연희전문학교 도서관과 이화여자전문학교 도서관에서 의해서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식 라이브러리언십이 도입된 1950년대 중반기부터였다. 상계글, pp.6-7.

38) 천혜봉, “「한국목록규칙」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제2권, 제3호(1965, 3), p.5.

39) 엄대섭, “圖協 五年의 발자취(上),” 도협월보, 제1권, 제2호(1960, 4), pp.28-32; 엄대섭 “圖協 五年의 발자취(下),” 도협월보, 제1권, 제3호(1960, 5), pp.21-26.

서구제도에 동양의 전통적인 학술사상을 무리하게 뜯어 맞추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⁴⁰⁾ 이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기존의 편목도구들을 수정증보하여 발전시키는 대신 완전히 다른 체계의 ‘새로운’ 분류법과 편목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 인식은 기존의 분류표와 편목규칙이 ‘세계적인 조류’를 완전히 도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⁴¹⁾ 가령, 당시 세계적인 동향은 ‘저자기본기입’으로 통일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서명기본기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주 큰 결함’은 일제 말기에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전연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⁴²⁾ 그리하여 ‘국제적인 표준목록의 원칙을 벗어나 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고, 표목의 선정 및 형식을 지나치게 특화하였으며, 목록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 방식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기존의 편목원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짓게 되었다.⁴³⁾

이로써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새롭게 현대적인 편목도구로 「한국십진분류법」과 「한국목록규칙」⁴⁴⁾을 각각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을 참고로 하여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용 문제는 간단치가 않았다. 가령, 기존의 ‘서명주기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던 도서관들로서는 갑자기 ‘저자기입방식’으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어 한동안 ‘서명주기입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였는가 하면,⁴⁵⁾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개인저자의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도록 한 원칙이 우리의

40) 천혜봉, “한국십진분류법의 간행에 붙여,” 도협월보, 제5권 제5호(1964, 6), p.2.

41) 이처럼 현대적 편목도구를 편찬하게 된 배경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박봉석씨의 「조선십진분류표」와 더불어 「동서편목규칙」은 우리나라 도서관사에 있어서 영구히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뒤떨어진 도서관학과 도서관 실무에서 얻은 결과는 도저히 발달한 다른 나라들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분류표라든지 또는 편목규칙은 부단한 연구로서 改正補充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선진국가로부터의 새로운 학문의 적수입은 더욱 개정과 보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으며 해방된지 10여년동안의 초창기로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期約 하기 위하여서도 또한 그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장일세, “한국목록규칙편집후감: 우리나라 도서관 근대화의 첫걸음,” 도협월보, 제5권, 제4호(1964, 5), p.25.

42) 장일세, “한국 목록의 현황과 그 장래,” 도서관, 제29권 제6호(1974, 6), p.38.

43) 이러한 내용은 「한국목록규칙」의 편찬 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 현대에 출판되는 도서는 서구의 정신 내지 물질문명을 토대로 하는 이른바 신학문의 것이 양적으로 압도적이다. 그런 까닭에 본 목록규정 제정에 있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 1949년판과 「미국의회도서관기술목록규칙」 1949년판이 주자료가 되고, 부차적으로는 전통을 자랑하는 「바티칸목록규칙」 이외 수종의 목록규칙들이 참조되고 있다...” 천혜봉, “「한국목록규칙」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제2권, 제3호(1965, 3), p.6.

44)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편목규칙’이 아니라 ‘한국목록규칙’이라 명명하였는데 1948년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이라는 先例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굳이 ‘목록규칙’이라고 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본에서 ‘일본목록규칙’ 또는 ‘영미목록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의 용례를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목록규칙’이 ‘동서편목규칙’과는 전연 다른 체제로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박봉석의 영향을 다소라도 받은 바 있는 후학들로서는 선학의 업적을 복돋우고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용어를 이어받아야 할 것이며, 목록을 작성하거나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목록규칙’보다 ‘편목규칙’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심우준, “목록과 편목,” 도서관, 제29권, 제6호(1974, 6), pp.3-4. ; 정필모, “한국목록규칙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전제,” 도서관, 제29권, 제6호(1974, 6), pp.5-12.

45) 이재철, “한국목록분류법의 실상,” 도서관학보(중앙대) 제4집(1983, 10), pp.219-220.

이러한 문제는 「한국목록규칙」을 편찬할 당시 다음과 같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 편목법의 二大潮流 인 서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하여 일부 도서관에서는 전혀 무시되기도 하였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편목도구로 편찬된 「한국십진분류법」과 「한국목록규칙」은 '외래적인 이론과 실재를 우리의 실정과 생리에 맞도록 調理하여 자주적인 경험을 쌓아 나갈 터전을 마련하였다'⁴⁷⁾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졸속히 제정'⁴⁸⁾된 까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이들 편목도구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물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도서관회의」가 우리 도서관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봉순은 편목규칙의 국제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집된 이 회의를 '아직 미개척지인 채 남아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남보다 뒤떨어진 것을 속히 주름잡아 남과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기회'⁴⁹⁾로 소개하였고, 이후 편목규칙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물들이 이어지면서 이 내용은 우리의 편목규칙을 정비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특히, 1972년에 발간된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ISBD(M)) 이 도서의 제일 식별요소를 '서명'으로 삼고 이를 기술의 맨머리에 적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비로소 서명주기입방식이 목록발달상 저자기입보다 한걸음 더 발달된 형태이며 목록이론상 저작에의 직접 접근책이란 점에서 서양의 저자기입 방식보다 우위에 선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⁵⁰⁾ 그 결과, 종래의 한국 전통적 편목방식인 '서명주기입방식'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고 비로소 이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⁵¹⁾

이렇듯 우리나라의 표준 편목도구를 편찬하고 정비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 고유의 토착적인 사상

자주기입법과 서명주기입법 중 전자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세계의 조류가 흐름에 따라 그 방법으로 우리도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이고 또 이에 따라 파생되는 목록의 재편성과 경비문제, 사람문제 등등 실로 막대한 시일과 경비가 관련되는 것이므로 경솔히 결정지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서명주기입 방식이 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휩쓸은 관계로 인해서 더욱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장일세, “한국목록규칙편집후감: 우리나라 도서관 근대화의 첫걸음”, 도협월보 제5권 4호 (1964. 5), p.25.

46) 정필모, 전게글, p.12.

47) 천혜봉, “한국목록규칙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제2권 제3호(1965. 3), p.5.

48) 정필모, “한국목록규칙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전제,” 도서관, 제29권, 제6호(1974. 6), p.5.

49) 이봉순, “파리에 모인 삼백명의 도서관인: 국제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사상계, 제10권, 제2호(1962. 2), p.257.

50) 리재철, “한국목록분류법의 실상,” 도서관학보(중앙대) 제4집(1983. 10), pp.221-222.

51) 이로 인해 한국목록규칙 제3판을 제정 편찬하게 된다. 한국목록규칙 제3판의 '編纂報告'에 보면 이처럼 ISBD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편목방식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3판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초기부터 일기 시작한 목록의 전산화 작업은 절대성이 없는 저자기입법에 대해 서구에서도 회의를 품고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를 나오게 하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서 마침내 기본기입의 표목없이도 도서의 서지적 식별이 가능한 목록기입법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제정해서 1974년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이 바로 그것이다. … 이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에 대한 재평가와 국제적 목록이론의 추이를 감안하여 한국목록규칙 제3판(KCR3)은 우리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흡사한 서지기술을 유니트카드를 삼아 목록기입을 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이것이 KCR1과 KCR2에 비해 KCR3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3판: 기술·표목·올림지시편』(한국도서관협회, 1983), p.6.

과 관행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기보다는 ‘국제화’라는 미명 하에 서구의 편목 방식을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현대식 표준분류표인 「한국십진분류표」는 한국부분 및 동양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DDC나 EC, LCC, SC, NDC 등 기존의 주요 분류법을 직접 참고하여 편찬되었으며⁵²⁾, 표준 편목규정인 「한국목록규칙」 또한 국제적 추세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영미계목록법을 그대로 본받아 제정되었다.⁵³⁾ 심지어는 古書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구미 목록규칙의 적용이 시도되기도 하였다.⁵⁴⁾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모방’의 욕망과 ‘비판’의 욕망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편목도구의 편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적 행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지고 엄격한 형식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시키기 위한 과정이 중시되면서 외형적인 ‘형식’에 더욱 집착하여 갔다.

3. 편목업무 전산화 시기의 연구

1963년 ‘King’s Report’라 불리는 「Automation and the Library of Congress」가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간되고, 목록 데이터를 기계가독 형식으로 처리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는 MARC포맷이 개발되어 전산화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하자,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곧이어 종래의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에서 탈피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산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발표된 연구물은 김종희의 「미국도서관계의 Automation화의 동향」(1968)이었다. 이를 필두로 ‘미국의회도서관의 자동화 조작’이나 ‘미국의회도서관의 자동화 경비 분석’, ‘미국 대학도서관의 자동화 현황’ 등과 같은 글들이 곧이어 소개되었다. 이 때부터 1980년대까지의 연구물들을 종합해 보면, 1970년대에는 주로 외국 도서관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막연히 업무 전산화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효과를 피력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있었던 편목 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현규섭이 1978년 「세계 기계가독목록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도서관 전산화에 앞서 한국 MARC의 개발이 필요하다’거나⁵⁵⁾ ‘서

52) 천혜봉, “분류표초안의 주제에 대한 소고: 사업의 중간보고를 겸하여,” 도협월보, 제4권 제3호(1963, 4), pp.21-28; 천혜봉, “한국십진분류법의 간행에 붙어,” 도협월보, 제5권 제5호(1964, 6), pp.2-6.

5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동협회, 1983), 編纂報告 중에서.

54) 천혜봉, 古書分類目錄法(한국도서관협회, 1970), 서문 중에서.

영미목록법을 준거하여 『한국목록규칙』이 제정된 이후 동양문화권의 고서목록에 적용할 규칙들이 몇 종류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조의 해제목록과 같은 고서목록 편찬에 적용된 규칙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것이었다. 이들 고서목록규칙은 기본표목원칙이나 기술규칙에 있어서 서양식 목록규칙의 원칙들을 준용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서의 형태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백린의 『古書目錄規則』, 천혜봉의 『古書分類目錄法』, 김치우의 『古書編目規則』 등이 있다. 도대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한국도서관협회, 2003), p.122.

55) 이택준, “목록의 기계화동향,” 도서관, 제35권 제3호(1980, 4), p.13.

지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식이 설정되어야 한다⁵⁶⁾는 식의 단속적인 글들이,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도서관에 적합한 목록형식과 코딩 구조,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목록기술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현장에서도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78년 2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행정전산화의 추진에 관한 지시'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준비반을 둬으로써 업무 전산화를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갔다. 이 때 마련된 기본적인 구상은 한국의 기계가독목록 형식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다음으로 업무 단위별 독립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Total system을 지향하겠다는 것이었다.⁵⁷⁾ 이러한 3단계 기본적인 구상 하에 1980년 2월에는 LC MARC와 UK MARC, 그리고 ISO 2709로 제안된 형식을 토대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실험용 포맷』을 제정하고⁵⁸⁾, 1982년에는 이에 적용할 목록규칙으로써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를 발간하였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을 개발한 후⁶⁰⁾ 도서관 전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도서관들도 제각기 독자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⁶¹⁾ '선진국의 여러 나라는 소규모 공공도서관까지도 이미 전산화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서지정보조차 컴퓨터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⁶²⁾ 그리하여 1980년

56) 김광영, "목록자동화에 관한 소고" 도협월보, 제20권 제2호(1979. 3), p.29.

57) 송한건, "목록업무의 전산화," 국회도서관보, 제20권 제2호(1983. 3), pp.26-27.

58)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은 한국문헌을 주된 입력 대상으로 하는 국내용 포맷으로, 기본구조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ISO 2709-1973의 표준포맷을 따르고 미국의회도서관 MARC 구조와도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세부적인 편성방침은 주로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MARC II format을 준용하고 UK MARC와 UNIMARC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개발되었다.

59)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목록의 컴퓨터 처리작업을 처음으로 착수하는 데에 적용할 목록규칙으로는 ISBD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IFLA에서 ISBD가 제정되자 각국에서는 이에 준하여 편목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줄곧 그 적용방법을 모색하기만 했을 뿐 목록규칙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편목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와 목록에 대한 세부규칙을 집성하여 자동화목록에 적용될 목록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SBD가 세부적인 방침은 각국의 서지작성기관이 결정하도록 재량권으로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재량사항을 하나하나 결정하여 그 내용을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라는 자료집에 수록하여 규정화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 보완판) (국립중앙도서관 1985), 編纂經緯 중에서

60) 이 때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실험용 포맷』은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표준용포맷』 제1판으로 제정되었다.

61) 이 시기에 추진된 대학도서관 전산화 계획과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심병규, "포항공대 중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운영현황" 도서관문화 제30권 제2호(1989. 11), pp.39-66; 송준용, "서울대도서관 전산화 추진현황," 도서관, 제49권, 제2호(1994. 여름), pp.56-65; 김두연·강우상, "대학도서관전산화 추진현황,"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2집(1994), pp.59-82; 유길호, "부산여자대학 도서관자동화 계획" (부산여자대학교, 1992) 등.

62) 송준용, 상계서, p.5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가장 먼저 「도서관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 DB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3-4년 후 몇몇 도서관들이 뒤이어 독자적인 자동화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들 도서관들이 독자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일부 도서관들에서는 자관용의 독자적인 포맷까지 개발하고 있어 전산화 작업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³⁾ 그 결과, 이로부터 약 10년간은 전산화 작업에 거의 진전이 없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터키 시스템이나 용역개발 등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도서관계는 도서관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지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전제로 한 ‘표준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목록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KORMARC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 6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운영협의회’를 결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KORMARC 개정기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 후 이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실험용 포맷 또는 표준용 포맷으로 불리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표준포맷’으로 완성하여 1984년 5월에 최종적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표준포맷』을 발간하였다.⁶⁴⁾ 그러나 1988년에 US MARC Format 첫판이 발행되어 KORMARC에 대한 개정안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1991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을 완성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월 드디어 ‘한국표준’으로 공포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KORMARC는 US MARC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일부 가변길이 필드의 변경이나 추가, 삭제가 있었을 뿐, 기본 구조나 표시기호의 대부분은 US MARC를 그대로 따온 것이었다. 국내외 도서관 간의 MARC 레코드 교류와 통합을 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표준성’이 강조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동화목록 계획 당시 ‘최소한 우리의 전래된 목록 작성방식을 승계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수용하고자’⁶⁵⁾ 했던 본래의 취지는 표준화의 논리에 의해 퇴색된 채 우리의 사상과 관행보다는 US MARC나 UK MARC 등의 사례를 본받아 그들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⁶⁾ 그 결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63) 이처럼 일부 대학도서관들이 서로 다른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서지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1988년 5월 국립대학전산실무위원회에서는 포맷사용에 대한 표준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변정숙, 전거서, p.8)

6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위원회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표준포맷(국립중앙도서관, 1984), p. iv.

65) 현규섭, “자동화목록법(KORMARC)의 저자표시 독립원칙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1),” 도서관, 제47권, 제4호(1992, 8), p.11.

66)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US MARC과 영미목록규칙(AACR)에 대한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점들이 파생되면서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⁶⁷⁾

이렇게 개발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도서관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혹은 도입에 앞서 이미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 DB의 구축을 서둘러 진행하였고, 목록 DB의 구축에 있어서도 ‘양적 팽창’을 목표로 전문 사서가 아닌 외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줄속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⁶⁸⁾ 더구나 KORMARC의 記述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기술규칙(『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과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으로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술규칙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으며,⁶⁹⁾ 더구나 두 규칙 모두 편목규정으로서는 불완전한 상태로 발간된 것이었다.⁷⁰⁾ 그 결과, 입력된 데이터에는 표기의 오류나 데이터의 누락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턱없이 ‘빈약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갔다.⁷¹⁾ 상

67)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성기주, “목록 전산화에 있어 목록규칙 적용상의 문제,” 도서관, 제40권, 제1호(1985, 2), pp.29-33; 문명신, “목록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KORMARC의 활용사례” 정보관리학회지, 제14집(1991, 6), pp.50-61; 현규섭, “자동화목록법(KORMARC)의 저자표시 독립원칙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1),” 도서관, 제47권, 제4호(1992, 8), pp.3-31; 현규섭, “자동화목록법(KORMARC)의 서명속성 분해: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2),” 도서관, 제48권, 제6호(1993, 12), pp.3-22; 정필모, “KORMARC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도서관, 제51권, 제4호(1996, 겨울), pp.3-15; 이정호,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p.295-322.

68) 이제환,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9, 3), p.10.

69) 앞서도 언급했듯이, KORMARC 포맷이 개발된 후 이 포맷에 입력하는 기술규칙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D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KORMARC 포맷의 근간이 된 LC MARC가 ISBD를 기초로 개정된 AACR2에 준하여 입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한국목록규칙』이 ISBD에 따라 개정되기 이전이었고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D에 따라 KORMARC 포맷에 적용할 기술규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규칙은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에서만 사용되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카드가 배포되기 시작하자 이를 이용하는 도서관들에도 이 규칙이 공지될 필요가 있어 공식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출간된 것이 개정을 거듭한 끝에 지금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이 되었다. 이처럼 목록기술규칙이 이원화되자 목록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이 생산되었다: 조수련·조순영, “분담목록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Ⅰ),”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2집(1994, 6), pp.830-198; 조수련·조순영, “분담목록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Ⅱ),”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3집(1995, 6), pp.108-138; 조수련·조순영, “분담목록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Ⅲ),”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1996, 6), pp.69-80; 도태현, “한국의 목록 표준화를 위한 방안 연구: 목록 관련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9, 12), pp.327-350.

70) 대표적으로 두 규칙 모두 ‘기본표목’에 관한 원칙이 없었다. 특히, 『한국목록규칙 제3판』에서는 도서식별의 구실을 하는 ‘기술부’와 검색의 실마리 구실을 하는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키는 목록기입방식을 채용하였는데 ‘3판을 펴낼 당시 ‘표목부’에 대한 규정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아 우선 급한 대로 완성된 ‘기술편’과 ‘표목올림지시편’만을 엮어 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한국목록규칙에서 ‘표목부’에 대한 사항은 추가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서도 1××의 ‘기본표목’이라는 항에 “이 필드는 개인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경우에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입형식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으며,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서도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두 규칙은 2004년 『한국목록규칙 제4판』으로 통합되면서 기본표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이 개념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현재 새로 개정된 목록규칙에서도 기본표목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황이 이러다보니 1990년대 초반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치중되어 있던 관심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품질향상을 통한 질적 발전과 이용자층의 만족 제고와 같은 ‘안정화 전략’으로 옮겨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급증하였다.

4. 메타데이터 도입 시기의 연구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웹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자원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들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가상의 형태(virtual form)로 존재하거나 분리된 서버에 존재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이들 자원을 기술하고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OCLC와 NCSA에서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더블린 코어’라는 13개 기본요소를 가진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새로운 기술요소와 조직기법, 그리고 접근방법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메타데이터와는 별도로, LC와 OCLC에서는 1996년 ‘전자자료의 소재와 접근’(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을 위한 특정 필드(856 필드)를 제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자료를 MARC 형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곧바로 국내에도 도입되어, 디지털 자원의 조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보다는, 또다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집착하여 그들이 제시한 메타데이터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행태가 보편화되었다⁷²⁾ 그 결과, 연구의 대부분이 ① MARC 형식으로서의 통합, ② MARC의 대체 형식 개발, ③ 새로운 메타데이터로의 통합, ④ MARC와 새로운 메타데이터의 공존 방안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 치중되었으며, 그 내용도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논의들만 되풀이하면서 개념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디지털 자원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도서관계의 혼돈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도서관에 적용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첨단학술정보센터(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KORMARC 형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정보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7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의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재환 KERIS 서지DB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방안 수립(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조순영, “종합목록 데이터의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KERIS 종합목록의 학위논문 서지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12), pp.5-19; 노지현, “유통성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의 품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107-134.

72) 가령, 메타데이터의 도입 초기 발간된 연구물을 살펴보면, 메타데이터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환경과 배경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시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던 메타데이터의 기술과 형식을 소개하거나 대표적인 메타데이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글들이 오히려 많이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구조』(문헌정보처리연구회, 1998)도 당시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1997)와 더블린 코어를 참조로 하여 새로운 메타데이터 형식을 제안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도서종합목록 구축에 관한 연구』(1998)가 그것이었다.⁷³⁾

이를 계기로 메타데이터를 둘러싼 관심은 한동안 ‘표준화’된 형식의 개발과 ‘호환성’에 집중되었다. 즉, MARC 형식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원과 관련된 기술구조를 제안하는 연구들과⁷⁴⁾ 특정 형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메타데이터 형식을 제안하면서 표준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들⁷⁵⁾이 주를 이루어갔다. 나아가 각기 다양한 형식과 구조를 가진 메타데이터 간의 데이터 변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⁷⁶⁾ 그러다가 NISO나 ISO와 같은 표준 기구에서 핵심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주요 메타데이터 간의 매핑이나 연결 문제가 차츰 정리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갔다.⁷⁷⁾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하나의 표준형식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고 이들 메타데이터 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0년을 전후해서는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디지털 형태로 된 콘텐츠의 확보에 관심이 쏠리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기초 토대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메타데이터 형식을 개발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MARC 형식은 내용의 포괄성이나 검색의 신뢰성, 데이터 구조의 상세성에서는 우수하지만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형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료나 내용을 표현하기 어렵다’⁷⁸⁾고 여겨졌으며, 따라서 ‘디

73)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의 KORMARC 형식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하고, 더불어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를 참조로 하여 MARC 형식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기술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US MARC에서 제시한 856 필드 등을 KORMARC 형식에 적용하는데, 그리고 후자는 더블린 코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원의 기술구조와 구문을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표준 형식’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국내 최초로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이후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시키는데 기초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74) 이와 관련된 입장은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MARC 형식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메타데이터는 완전한 목록의 대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규칙의 정비와 함께 도서관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는 자료의 상세한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신속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에 비해 식별요소가 부족하고, 전자파일과 같은 제어수단이 사용되지 않아 도서관의 서지데이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디지털 자료를 조직하는 데에도 기존의 MARC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현, “디지털 정보자료 관련 목록규칙의 동향”, 정보관리연구 제4권 3호 (2003. 9), p.9)

75) 이것은 ‘분산구조’라는 관점에서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특정 형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수준과 메타데이터의 적용분야마다 요구되는 데이터요소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일형식의 메타데이터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한 특정 형식이 무한정 확장될 수도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첨단학술정보센터,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도서종합목록 구축에 관한 연구』 (첨단학술정보센터, 1998), p.3)

76) 김태수, “MARC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변환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35권, 제6호 (1998, 12), pp.3-14; 김태수, “메타데이터 변환과 자원기술구조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4호 (1998, 12), pp.95-112 등.

77) 이재운, “메타데이터 환경과 과제,” 데이터베이스 월드, 통권 67호 (1998, 12), p.112.

78) 김은수·문숙희,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사례,” 도서관, 제56권, 제4호(2001, 겨울), pp.54-55. 이 외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지가 많이 나타난다.

지털 자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각 유형별로 보다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 디지털 자료의 생성과 동시에 메타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self-description") 새로운 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⁷⁹⁾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참조로 하여 단위 도서관의 기술목적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새로운 메타데이터 형식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으며,⁸⁰⁾ 특히 여러 메타데이터 형식을 비교하고 소개하는 연구물들도 상당수 생산되었다.

학계의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디지털 자원'이나 '메타데이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논의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단순히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대체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더구나, 그 내용도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서 몇몇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우리의 문화에 적합한 토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들을 참고로 하여 그 중에서 적합한 몇몇 요소만을 추출하여 적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디지털'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과 내실 있는 발전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를 반영한 디지털 자원의 편목시스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지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력 있는 '지적' 도구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외부의 시스템과 기술 논리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료조직과 관련하여 우리 문헌정보학의 지적 토대가 형성된 과정은 한마디로 서구의 학문, 특히 미국식 학문을 이식하고 그 차원에서 체질을 강화하면서 더욱 서구화 되는 길을 걸어온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외국의 신학문이 도입된 이후, 도서관의 자료조직 업무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도서관이 '현대식'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절대적인 노력이 투입된 시기였다. 그러다보니 해방 이전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은 도서관을 우리 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확보하였던 '정통성'과 '주체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단순히 책을 분류하고 편목하는데 필요한 '서구식' 기술과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7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표준화 연구(서울대학교 2002), p.96.

80) 단위 도서관이나 개별 자료의 유형별로 개발된 메타데이터 형식에 관한 연구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은수·문숙희,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사례," 도서관 제56권 제4호(2001, 겨울), pp.52-76; 김현희, "기록물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와 구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4호(2001, 12), pp.57-81; 김진아·김태수, "동영상 정보의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4호(2001, 12), pp.15-35; 최유미,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0집(2002, 5), pp.5-24; 한중엽, "해양 전자정보자원 메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6), pp.159-179.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기술과 규칙이 도서관현장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편목방식의 체계와 통일성이 점차 결여되어 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조직 연구자들의 관심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하는데 혹은 그들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보니 도서관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의 편목규정을 마련하던 시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 도서관이 적용해 왔던 전통적인 편목방식과 일반적인 관행을 되짚어보고, 나아가 우리의 전통적인 지식 문화를 대변할 토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서구의 다양한 편목규칙과 분류법을 ‘그저 덮어놓고 흡수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⁸¹⁾ 그러다보니 편목도구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적 행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그들이 개발한 외형적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상태에서 편찬될 수밖에 없었고, 도서관현장에서는 이러한 편목도구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도서관 업무에 전산화로 도입하고 편목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타데이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에 기반하여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우리 식의 자료조직 이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보다는 또다시 ‘국제화’와 ‘표준화’의 논리에 따라 그들이 제시한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⁸²⁾ 그 결과, 도서관에서의 자료조직 업무는 더욱 더 극심한 혼돈과 갈등에 휩싸여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학문이 이식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⁸³⁾

81) 이에 대해 천혜봉은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학의 이론과 실체가 이 땅에 이식된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美式 유형의 것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는 했으나, 그저 덮어 놓고 익히고 흡수했던 우리는 그 뒤 호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제·정치·문화·사회·교육의 제도와 사정이 워낙 다르고 뒤진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차원이 높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리 없기 때문이었다. 純美式의 관리가 후진성을 띤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리 없었고, 수서정책이 빈약한 예산으로 운용되는 우리에게 그대로 맞아들 리 없으며, 정리방법도 책의 내용과 형태가 판이한 동양 고유의 자료를 분류하고 목록하는데 또한 그대로 채택될 리 없었으므로 두루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던가.” (천혜봉, 『古書分類目錄法』 (한국도서관협회 1970), 自序 중에서)

82) 이러한 경향은 우리 학문의 ‘현실적합성’과 ‘적실성’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가령 김정근이 제기해 온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서관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실성’(relevancy)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도서관학, 적어도 강당 도서관학은 외국의 도서관학, 주로 아메리카 도서관학의 압도적인 영향 밑에서 발전해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서관학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받는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시공을 달리하는 아메리카 사회의 도서관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이론과 연구방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의 도서관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따른다. 바람직하기로는 한국의 도서관학은 한국의 도서관 현장과 그 환경에 대한 관찰에서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 내는 귀납적 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은 이 원칙을 그다지 잘 따르지 못해왔다. 아메리카 도서관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을 한국의 도서관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정근,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0, 1), pp.29-30.

83) 물론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의 목록이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에 비해 그

물론 외국의 선진학문과 제도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학문과 제도를 이식하고 모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방 후 서구 민주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그들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을 모든 면에서 모방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잡다한 담론의 유행을 추수하고 그러한 경향에 휩쓸리다보니 자기중심을 잃어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우리의 도서관환경과 정보문화에 적합한 ‘토착적인’ 자료조직 이론을 정립하고, 우리의 고유한 지식문화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토착적인 정보도구들을 생산하여 유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일환을 사적 고찰을 통해 실제화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기초적 단계로 삼고자 하였다. 이후에 수행될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생산된 주요 연구물이 기반하고 있는 지적 토대와 이들이 우리 도서관현장에 끼친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해 볼 예정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의 자료조직 연구가 도서관현장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나아가 이로 인해 도서관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 왔던 기본적인 인식 틀을 재점검해 볼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목록에 내재하는 철학이나 원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외형적 모양새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온 형식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최소한 외형적 모양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단정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입의 과정에서 외형적 모양새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다면, 그리하여 외형적 모양새나마 제대로 모방했다면, 지금처럼 목록의 품질이 조악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КСІ